

호스피스 완화의학에서의 의사 교육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 삼 용

서 론

현대의학은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 혹은 교정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상적인 진료는 병의 근본적인 치료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암과 같이 질병의 원인과 병태생리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는 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진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다. 즉, 현대의료로 완치가 안된다고 판단되는 단계의 환자들은 연구나 진료의 관심 밖이었고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죽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신체적 증상의 치료에는 관심이 있겠으나 말기환자들에서 문제가 되는 삶의 질의 여러 차원, 곧 정신심리적인 면, 사회경제적 요구, 영신적 존재론적인 면의 돌봄에는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본 고찰에서는 의사들에게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교육의 목표

의사들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학 교육의 목표는 말기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태어남이 생명의 첫 과정이라면 죽음은 삶의 마지막 과정임을 인식하고, 환자로 하여금 당대의 사회적 통념 혹은 이상에 맞는 임종과 사별과정을 도울 수 있는 의료인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본다.

방 법

학부생을 대상으로는 강의와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고 전공의를 대상으로는 세미나, 토론회, 팀 모임, 월례집담회, 학회 참석 등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충남대병원 내과 종양학과에서는 2개월마다 순환하는 내과전공의 및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매주 10분간의 토론회, 매주 호스피스 회진과 팀회합을 실시하며, 월례집담회에서 증례발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교육도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과정 및 내용

여러 대학에서 호스피스와 완화의학의 역사, 목표 또는 이상, 운영방식과 호스피스팀의 구성원, 세계적 및 지역적 현황, 말기환자와 관련한 의료윤리 등은 의대생의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으며 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호스피스환자의 평가를 비롯한 다음 내용은 보다 실천적인 것으로 전공의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주된 교육내용은 말기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법, 호스피스 환자 돌보기(신체증상, 정신심리증상, 사회적 돌봄, 영신적 돌봄), 병의 진행에 따른 연속적

치료목표의 수립, 사전의사 결정서나 심폐소생술 철회와 관련된 사항, 의료윤리와 안락사의 문제들, 최종 임종단계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과정의 이해와 최종 임종기의 환자관리 및 사별관리 등이다.

평 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평가할 때는 시험, 구술, 회진 시 토론이 흔히 사용되는 기법일 것이다.

전공의나 취업 중인 의사를 대상으로는 회진시의 토론, 서베이, 환자 또는 보호자의 만족도조사, 설문조사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되먹이기

국내에서 수년전 실시하였던 의사들의 암성통증과 그 치료의 이해와 태도에 대한 써베이는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완화의학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교육의 효과의 측정을 위해서는 향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개발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된다.